세계 여성불자, 6월 한국서 '깨어있는 지혜' 나눈다

샤카디타, 18차 대회 한국 개최…6월23~27일 코엑스 · 봉은사 일대

'위기 세상 속 깨어있기' 주제로
40개국 3000명 이상 참여 예상
논문 발표 · 명상 · 순례 등 이어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 세계 비구니 승가와 여성불자들의 축제,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6월 23~27일 한국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주관단체인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와 샤카디타 코리아는 3월 27일 서울 비구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6월 23~27일 서울 코엑스와 천년고찰 봉은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0개국에서 3000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04년 열렸던 8차 대회에 이어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세계 여성불자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해야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장 본각 스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깨어있는 지혜'를 강조했다. 스님은 "최근 코로나19와 전쟁, 지진 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발전시켜온 문명과 작금의 세계정세가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뼈아프게 실감하고 있다"면서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유한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지 잊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지혜와 통찰을 길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세계대회 개최의 기대를 표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닷새간 다채로운 논문 발표와 워크숍, 명상, 법문, 순례 등이 진행된다. 논문은 △한국의 불교여성 △깨달음의 추구: 비구니 수계의 현황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상성 △순례, 수행, 그리고 불안전한 인간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적용하기 등을 주제로 27편이 발표된다. 대중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 형식으로 준비돼 눈길을 끈다.

해외 불교국가의 문화활동과 한국 전통문화를 한 자리에서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48건의 워크숍과 9건의 포스터 발표도 이어진다. 사찰음식과 탁본, 발우공양, 다도 등 체험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수행법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닷새 동안 이어진다. 포스터 발표는 환경과 불교계 성평등, 현장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참여자들은 명상과 예불도 매일 동참할 수 있다. 대회 첫날 티베트 불교 명상, 테라바다 불교의 비파사나 명상, 미국 선 불교 명상이 차례로 열리며 대회 둘째 날부터 봉은사에서 매일 아침 6시 30분, 한국 선불교와 테라바다, 티베트, 베트남 불교 명상이 진행된다. 저녁 예불은 빨리어, 티베트어, 베트남어로 진행된다. 전국에서 모인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봉은사에서 공양을 준비, 대회 기간 내 참가자들이 뛰어난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샤카디타 세계대회장 본각 스님



대회 후인 6월 28~30일에는 오대산 월정사와 인제 백담사, 양양 낙산사 등 사찰 순례가 예정돼 있다. 순례 기간동안 사찰참배와 함께 자연 속에서 마음 고르기, 세계 평화와 환경에 대한 염원을 담은 숲 건강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홍보위원장 정목 스님은 "샤카디타 세계대회 이후 스리랑카에 비구니 승가가 생겼고, 부탄에서는 150여명 여성들이 수계를 받아 비구니 스님이 탄생할 수 있었다"면서 "샤카디타 대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위기의 시대, 여성불자의 역할과 극복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면서 한국 불교의 위상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은수 부대회장(서울대 철학과 교수)은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 여성들이 함께 단결, 앞으로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것인가는 물론 불교 인생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남녀노소, 종교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샤카디타 홈페이지(http://sakyadhita2023.kr)에서 가능하다. 4월 23일까지 등록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주최 측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대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대회기간 동안 서울 코엑스, 봉은사, 전국비구니회관 등에서 행사장 및 공양간 지원, 외국어 통역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은 4월 20일까지며 봉사자들에게는 확인서를 지급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아픈 지구를 치료해 주세요', '자비와 화합, 환경과 생명 존중'을 주제로 5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 1편을 비롯해 최우수상 등 20편 선정, 시상한다. 수상작은 대회 기간 동안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6월 24~26일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협회는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불교여성에 관한 제1회 국제회의가 끝난 후 설립됐다.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평화를 도모하고 불교여성의 국제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세계의 서로 다른 불교 전통간의 조화와 이해를 촉진하고 인류의 이익을 위한 자비로운 사회적 행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매 2년마다 개최하며 한국에서는 2004년 8차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3년 7월 설립된 샤카디타 코리아는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의 한국지부다. 세계 여성불자들과 교류하고 국내 여성불자의 국제적 리더십을 증진하며 양성평등과 불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과 서울대 철학과 조은수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제대회 참가, G.E.P 국제역량강화 프로그램, 샤카디타 포럼 등의 활동을 한다. 02)6288-6325

부산 화엄회 "열암곡 마애불 입불 불사 동참"

3월 27일, 기금 1000만원 전달
진우 스님 "화엄회, 부산불교 선봉장"
혜도 스님 "불사기도, 마음 모을 것"

부산 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봉사 모임인 화엄회가 조계종 핵심 종책 불사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사업에 마음을 모아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를 위한 기금 1000만원도 종단에 전달했다.

부산 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이하 부산 비구니 화엄회)는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재)아름다운동행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불사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 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는 3월 27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기금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날 전달식에는 화엄회 총무부장 동효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이 참석했다.

전달 직후 동효 스님과 혜도 스님은 부산 비구니 화엄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들에 따르면 부산 비구니 화엄회는 부산대 병원 환자들을 위해 법당의 지도법사를 맡아 환우들을 위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43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해외 구호 단체 지원 등으로 활동 영역도 넓히고 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부산 화엄회 스님들이 부산 불교의 선봉장"이라며 "종단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격려했다.

혜도 스님은 "부산 비구니 화엄회 회원 스님들은 다른 불사보다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모시는 불사에 관심이 많다"면서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소재한 동국대 WISE캠퍼스의 스님들도 열암곡 불사 기도에 매일 동참한다고 들었다. 부산 비구니 화엄회도 마음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 오윤겸 수습기자

진우 스님 "韓印 양국 불교 중흥 위해 문화교류하자"

3월29일, IBC 대표 담마삐야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계불교도연맹(IBC) 대표 및 사무총장 담마삐야 스님을 만나 "한국불교와 인도불교의 중흥을 위해 양국간 활발히 불교문화를 교류하자"고 당부했다. 담바삐야 스님은 한 ·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 불교문화 전시 등을 위해 방한했다.

진우 스님은 3월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난 담마삐야 스님에게 먼저 상월결사 인도순례 당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스님은 "수많은 인도 불자들이 상월결사 순례단을 환영하는 모습에 뜨거운 형제애를 느꼈다"면서 "부처님 탄생국으로서 앞으로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담마삐야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인도불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불교국가들과 적극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이 IBC 대표 담마삐야 스님을 만나 문화교류를 당부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전 세계인에게 각광받고 있는 인도 요가와 명상 등에 대해서도 환담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히로히토 수바르티 대학 이사장 겸 불교대학장, 쉬프라 사이몬 인도 불교문화비영리재단 대표 등이 동참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海印寺
生前預修齋

입재 2023년 3월 26일(일) 오전10시
초재~6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회향 2023년 5월 13일(토) 오전 10시
장소 해인사 대적광전

귀의 삼보 하옵고,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불기 2567년 계묘년 윤달을 맞이하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해인사에서 봉행되는 생전예수재는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전예수재를 봉행하여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고 참회를 통해 업장소멸하여 사후에 고통과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전통 의식입니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생전예수재의 인연을 맺어 세상에 둘도 없는 무량한 공덕을 쌓는 불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정례



법보종찰 해인사

동 참 금			
설판재자	大설판 100만원	中설판 50만원	小설판 30만원
생 축	1인 3만원		
영 가	1위 1만원		

▪문의 및 접수 접수실 055)934-3105~6
▪계 좌 안 내 농협 351-0744-6572-93 (예금주 : 해인사)


국보 제206호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변상(해인사 소장)'